

칼럼

장기채 주필



노인의 가난과 노인의 행복

원조를 받았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세계일류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가슴 아픈 놀라운 지표가 하나 있다. 노인빈곤율 지표다. 한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9.6%다. 노인 두 명 중에 한명 꼴로 가난하다는 뜻이다. OECD 국가들 평균이 12.4%니까 거의 네 배에 이른다. 노인빈곤문제가 심각해서 '노후파산' 같은 책이 나온 일본도 20%에 불과하다. 더구나 한국 노인들의 소득은 다른 나라와 달리 계속 내리막길이라는 점이다.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외국의 어느 지혜로운 노학자는 "어린이와 노인이 행복한 나라가 문화국가입니다"라고 했다.

노학자의 지혜가 빛나는 가르침이다. 5000년 역사에 빛나는 우리라고 하지만 정작 역사는 우리 곁에

없고 온통 새로운 것들뿐이다. 모두 오래된 것보다는 새 것을 좋아한다. 세월은 흘러서 자식은 생각이 바뀌어 옛날 같지 않는데, 아직 국가적 복지는 그 빈틈을 메꾸지 못한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금도 어디에선가 스스로 생계를 위해 허드렛일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다.

혹은 돌보이게 없이 병고에 시달리고 계실지도 모른다. 우리도 늙어저러려니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노인이 행복하다면, 그리고 어쩌면 늙고 병들어 주위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노인 일지라도 그들이 행복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히 문화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령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지금, 세계 10위인 경제대국이 된 우리로서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미국으로 이민 간 지인의 말이다.

뉴저지의 노인 아파트에 홀로 살던 그분은 "아들이나 딸보다 미국 정부가 효자"라고 말했다. 자기 같은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나라가 용돈(연금주고 산 임차료의 아파트까지 제공했다는 얘기였다).

이제 의료용이 일상이 돼버린 노인들에게 또 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바로 먹고 사는 문제다.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세계 1위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나라다. 해방 직후 40세에 불과했던 평균수명이 지금은 배로 늘었으며, 영양상태의 개선과 획기적인 의료 기술 발달에 힘입어 조만간 이 나라는 90세, 100세를 넘길 것이다.

100세 시대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올 수 있다. 100세 시대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로운 장수 패러다임이다. 우선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부

터 바뀌어야 한다. 오늘의 노인은 부양받는 입장에서 사회를 책임지는 당당한 존재로 바뀌어가고 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응집된 힘을 필요로 할 때 노인들은 하나가 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다.

'젊은이가 망친 국가를 노인이 구한다'는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노인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구심점이자 보물임에 틀림없다. 시골만 보더라도 농사짓는 이는 모두 노인들이다.

이들은 지팡이 대신 삼과 곡괭이로 땅을 일구 수확한 농산물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며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분들이다. 돌이켜 보면 1884년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 이 땅을 밟은 호러스 알렌은 '경로효친의 천국'이라고 표현했다.

지금부터라도 방치된 계층, 특히 소외된 독거노인에 대한 다양한 심리적 안전망을 갖추는 대도 한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 지원조차 못 받는 서러운 노인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토인비가 부러워한 우리의 정신문화를 되살리려면 정부 역할도 중요하다.

노인이 가능한 나라에서 노인이 행복한 나라로 가는 길을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한다. 그동안 부양만 받던 노인에서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으로 출발하는 새로운 노인상은 참으로 아름답지 않겠는가. 노인이 행복한 나라를 꿈꾸면서...

社說

의무화 된 반려견 등록

정부가 9월부터 등록하지 않고 키우는 반려견을 조사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월까지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등록하지 않은 동물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 각 지자체는 동물 미등록자 등을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지자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대행기관은 동물병원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지정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는 경비견, 수렵견까지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

고양이는 시범사업을 확대해 등록방식을 등을 살펴본다.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동물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미등록 동물 소유자들이 동물등록, 등록정보 변경 신고 등을 해야 할 것이다.

반려견 소유주들은 미등록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의 일환이기도 하고 동물보호 차원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애완견 사용자들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적극 동참하여 애완견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 알콜음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 00021 (원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honam.com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장마철 안전사고, 알고 대비하자

본격적인 장마철에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들을 파악하여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겠다.

첫째, 장마철 교통사고이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평소보다 50%이상 길게 유지하고 감속 운행하며 브레이크는 여러 번 나누어 밟으며 비가 올 때에는 낮에도 어두우므로 전조등을 켜도록 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택 등 생활도로는 30km/h 이하로 서행운전을 한다. 특히, 학교주변 차량 운행 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가 오면 운전자는 차에 흐르는 빗물로 인해 시야가 흐려질 수 있고 우산을 쓴 어린이들은 우산에 가려 주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

또한 우산을 쓰지 않은 아이들은 비를 피해 빨리 건너기 위해 갑작스럽게 도로를 횡단하기도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는 운행 전 와이퍼 등 차량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학교주변 서행 및 어린이들은 빨간 신호등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겠다.

둘째, 장마철 산악사고이다. 스며든 빗물로 지반이 약화되어 산사태와 낙석의 위험이 높다.

벼랑 끝이나 절개지, 비탈진 곳의 바위 등은 무너져 내리기 쉬우니 반드시 우회해야 한다.

또한 비에 젖어 노출된 나무뿌리 등은 미끄러지기 쉬우니 주의하고, 큰 비가 내린 후 며칠 동안은 산행을 금하는 것이 안전하다.

셋째, 화재발생사고이다. 여름철은 고온다습하고 장마기간 동안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하여 화재가 일어날 확률은 낮지만 냉방을 위하여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전기제품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부주의나 무관심 또는 제품의 노후화 및 불량으로 화재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여름철은 잠자리에 모기향을 피워 놓고 자다가 모기향불이 주위의 가연물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주의해야 할 안전사고가 많이 있으므로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하며 어른들의 편의주의로 학교 주변 아무렇게나 주·정차된 차량에 의해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사고발생 시 소방차 등 긴급차가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학교주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아파트, 사람들이 붐비는 유원지 등에 소방통로 확보가 필요하므로 울바른 주·정차 질서를 부탁드린다.

한선근 /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